

양가적 관계와 지지적 관계의 네트워크 분석: 성격, 결혼 적응도, 우울 및 불안의 상호 관계†

경선정 박채림 신희영*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박사과정 교수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함께 강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양가적 관계라 한다. 개인의 성격, 결혼 적응도, 우울 및 불안은 서로 긴밀한 상호 관련성을 보이는데, 이는 관계의 유형(양가적, 지지적)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성격(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신경증), 결혼 적응도(부부 일치도, 부부 응집도, 결혼 만족도), 우울 및 불안 간의 복잡한 상호 관계를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살펴보고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변인과 연계 변인을 확인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구조와 변인 간 관계 강도가 양가적 배우자와 지지적 배우자 간 차이를 보이는지 네트워크 비교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기혼 성인 485명(평균 54.38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우울, 불안, 신경증은 긴밀한 정적 상호 연결성을 보이고 결혼 만족도와 부적 연결성을 보였으며, 우울, 신경증, 부부 일치도는 네트워크의 핵심 요인으로 우울과 신경증은 연계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가적 배우자와 지지적 배우자의 네트워크 비교 분석 결과, 성실성-부부 일치도의 정적 연결성과 신경증-결혼 만족도의 부적 연결성이 지지적 배우자 집단에서만 유의하고, 우호성-우울의 부적 연결성은 양가적 배우자에 비해 지지적 배우자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개인의 결혼 적응도와 심리적 건강을 위해 신경증을 보완할 수 있는 성격 특성과 관련 요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부부 일치도를 높이기 위한 개입 및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주요어: 양가적 관계, 지지적 관계, 성격, 결혼 적응도, 우울, 불안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사업(전북대학교 심리학과)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o. 4199990714 213).

* 고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신희영, (06974)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063-270-2959, E-mail: shinhy@jbu.ac.kr

개인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갈등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 영향의 상대적 크기는 갈등을 경험하는 사회적 타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Van Harreveld et al., 2015). 개인에게 중요하지 않은 타자와의 갈등은 일시적 불쾌감을 주는 것에 그칠 수 있으나,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은 일시적인 불쾌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며 누적적인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개인은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부정적 상호작용을 모두 경험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양상에 따라 관계의 질적 특성은 차이를 보인다. 선행 연구는 타자에 대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정도에 따라 사회적 관계는 지지(높은 긍정 정서, 낮은 부정 정서), 갈등(낮은 긍정 정서, 높은 부정 정서), 양가(높은 긍정 정서, 높은 부정 정서), 무관심(낮은 긍정 정서, 낮은 부정 정서)의 네 유형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고 보고한다(Holt-Lunstad & Uchino, 2019).

개인에게 중요한 타인 중 대표적인 관계로 배우자를 들 수 있다. 배우자는 타인에서 가족으로 전환된 특별한 사회적 타자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므로 쉽게 분리되기 어려운 관계이다(Faure et al., 2020). 개인은 배우자에게 친밀함을 느끼고 지지를 받기도 하지만 자녀 양육, 경제적 문제, 일과 여가의 균형, 삶을 살아가는 태도 등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치와 신념의 차이로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은 배우자와 공동의 소유와 책임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고 적응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정적 정서가 누적되어 양

가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Surjadi et al., 2023). 선행 연구는 개인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삶의 여러 영역을 공유하며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려야 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양가적 관계가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한다(Birmingham et al., 2019; Holt-Lunstad & Uchino, 2019; Lee & Szinovacz, 2016).

예컨대, Fingerman과 연구자들은 호위대 모형을 사용하여 배우자 관계 유형을 살펴보았다(Fingerman et al., 2004). 호위대 모형(Convoy model)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을 원 중심의 개인에서 친밀도와 중요도에 따라 가장 안쪽의 내접원, 중간의 중심원, 바깥쪽의 외접원을 포함한 세 겹의 중첩된 원으로 구성된 호위대로 표현하여 관계의 유형을 파악하는 방법이다(Khan & Antonucci, 1980). Fingerman과 연구자들(2004)은 참여자에게 친밀의 호위대와 갈등의 호위대에 속하는 중요한 타인의 이름을 원 안에 직접 기술하게 하여 친밀의 호위대에만 속해 있는 관계를 지지적 관계로 친밀과 갈등의 호위대에 동시에 속해 있는 관계를 양가적 관계로 간주하여 관계의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배우자의 경우 지지적, 양가적 관계에 해당하는 개인이 각각 42%, 56%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이 배우자에게 지각하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자기 보고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계 유형을 구분한 선행 연구들은 지지적 관계와 양가적 관계가 각각 23~30%, 70~77%에 해당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Birmingham et al., 2015; 2019; Uchino et al., 2014; 2016).

많은 연구들은 개인이 배우자와 유지하는 관계 유형이 성격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

한다. 성격은 특정 상황에 대한 개인의 정서, 생각, 행동 패턴을 예측하게 하는 심리적 체계로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이다(McCrae & Costa, 2008). 성격은 사회적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인 내적 요인으로, 개인은 성격 특성에 따라 경험하는 사회적 사건에 대해 다른 반응 양식을 보인다(Asselmann & Specht, 2020). 예컨대, 신경증 성향이 높은 개인은 가까운 타인으로부터 양가적인 태도를 지각할 때 일관되지 않은 정서로 인한 높은 긴장과 불안감을 경험하고(Levy et al., 2018), 이러한 개인이 비 일관적인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할 경우 갈등으로 이어져 가까운 타인과 양가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Fingerman et al., 2006).

뿐만 아니라, 성격은 다양한 심리 사회적 건강 및 적응 지표와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 불안정한 정서와 외부 사건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과도하게 걱정하는 신경증 성향은 우울과 불안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며(Nikčević et al., 2021; Sayehmiri et al., 2020), 신경증이 높은 개인은 갈등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낮은 결혼 만족도를 경험한다고 보고된다(O'Meara & South, 2019; Vater & Schröder- Abé, 2015). 반면, 우호성, 성실성, 개방성, 외향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타인과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보고된다(Morstead et al., 2024). 성실하고 우호적인 개인은 타인의 지지를 더 자주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높은 관계 만족도를 경험할 수 있다(Delatorre et al., 2022).

배우자와의 관계의 특성이 심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많은 연구

들은 배우자와 양가 관계를 유지하는 개인은 지지적 관계를 유지하는 개인에 비해 낮은 결혼 만족도를 보고하고 이혼을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 (Faure et al., 2022; Surjadi et al., 2023), 높은 심혈관 질환(Uchino et al., 2014; 2016), 우울 및 외로움(Lee et al., 2022; Tighe et al., 2016)과 낮은 삶의 질(Offer, 2020)를 경험한다고 보고한다.

이처럼 많은 연구 결과들은 개인의 성격, 배우자와의 관계 특성, 심리 사회적 적응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꾸준히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성격, 결혼 적응도, 심리적 건강을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신경증과 결혼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어 신경증 외의 다른 성격 특성과 결혼 만족도 외 다른 차원의 결혼 적응도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적응적인 배우자 관계는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숙한 두 개인이 서로 만족하며 공동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Kendrick & Drentea, 2016),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는 배우자와의 다차원적 상호작용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인생의 사건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부부 일치도), 부부가 여가와 중요한 활동을 얼마나 함께 공유하는지(부부 응집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과 만족감을 얼마나 느끼는지(결혼 만족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신경증과 결혼 만족도, 또는 결혼 만족도와 우울(Lee et al., 2022; O'Meara & South, 2019) 등 심리적 변인 간 단편적인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에 그쳐, 신경증을 포함한 다양한 성격, 결혼 적응도의 다면적 차원, 우울 및 불안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5요인 성격(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신경증), 결혼 적응도의 하위 차원(부부 일치도, 부부 응집도, 결혼 만족도), 우울 및 불안을 함께 연구 모형에 포함하여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여러 관계들 중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관계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복잡한 상호 관계를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제시하는 방법이다. 주요 변인을 노드(node)로, 변인 간 관계를 에지(edge)로 표현하여 많은 수의 변인들이 서로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중심성 지수(centrality indices) 산출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

을 하는 변인(핵심 요인)과 주요 그룹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변인(연계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5요인 성격 특성, 결혼 적응도의 하위 차원, 우울 및 불안이 서로 어떠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복잡한 상호 의존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련성이 높은 변인들 중 특히 중요도가 높은 변인을 확인하기에 적절한 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여 성격-결혼 적응도-우울 및 불안의 관계를 살펴보고 네트워크의 핵심 변인과 연계 변인을 확인하며, 네트워크 구조와 변인 간 관계의 강도가 양가적 배우자와 지지적 배우자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성격(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개

표 1. 연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체 N(%)	양가적 배우자 N(%)	지지적 배우자 N(%)	χ^2
연령	40~49	138 (28.5)	57 (41.3)	81 (58.7)	6.33*
	50~59	171 (35.3)	83 (48.5)	88 (51.5)	
	60이상	176 (36.3)	62 (35.2)	114 (64.8)	
성별	남	243 (50.1)	74 (30.5)	169 (69.5)	24.21***
	여	242 (49.9)	128 (52.3)	114 (47.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5 (19.8)	59 (62.1)	46 (37.9)	10.10***
	대학교 졸업	326 (67.2)	129 (39.6)	197 (60.4)	
	대학원 이상	63 (13.0)	23 (36.5)	40 (63.5)	
소득	1천만원 미만	77 (15.9)	35 (45.5)	42 (54.5)	6.54
	1천만원~2천만원 미만	30 (6.2)	11 (36.7)	19 (63.3)	
	2천만원~3천만원 미만	36 (7.4)	12 (33.3)	24 (66.7)	
	3천만원~4천만원 미만	69 (14.2)	37 (53.6)	32 (46.4)	
	4천만원 이상	273 (56.3)	107 (39.2)	166 (60.8)	
자녀여부	유	451 (93.0)	193 (42.3)	258 (57.7)	2.83
	무	34 (7.0)	9 (26.5)	25 (73.5)	

주. N_{전체}=485, n_{양가적}=202, n_{지지적}=283.

방성, 신경증), 결혼 적응도(부부 일치도, 부부 응집도, 결혼 만족도), 우울 및 불안은 어떠한 상호 관계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2. 성격, 결혼 적응도, 우울 및 불안 간 상호 관계를 보여주는 네트워크의 핵심 변인과 연계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3. 성격, 결혼 적응도, 우울 및 불안 간 상호 관계를 보여주는 네트워크의 구조와 변인 간 관계는 양가적, 지지적 배우자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온라인 패널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IRB 2023-01-013). 본 연구는 배우자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우자 관계를 유지하는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과 성별을 균등 표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들은 설문 시작 전 연구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설문 도중 참여를 중단하고 싶은 경우 패널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을 마친 참여자들은 패널 사이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례를 제공받았으며 응답 내용은 비밀 보장을 위해 코드로 변환되어 사용되었다. 네트워크 비교 분석을 위해 호위대 모형에서 배우자와 양가적, 지지적 관계를 보인 485명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기

혼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혼, 별거에 해당하는 개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 도구

본 연구는 호위대 모형에 기반한 척도를 사용하여 배우자 관계를 측정하였으며,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양가적 관계와 지지적 관계를 구분하였다(Fingerman et al., 2004).

양가적 관계와 지지적 관계. Kahn과 Antonucci(1980)의 호위대 모형에 기반한 설문지와 Fingerman 등(2004)이 사용한 기준을 사용하여 양가적 관계와 지지적 관계를 구분하였다. 호위대 모형을 통해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연결망을 가장 안쪽의 내접원, 중간의 중심원, 가장 바깥쪽의 외접원을 포함한 세 겹의 중첩된 원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친밀과 갈등의 호위대에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보고하였다. 친밀의 호위대에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친밀한 순서로 내접원에 이름을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갈등의 호위대에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힘들게 하는 순서로 내접원에 이름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후 기술한 타인과의 관계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개인이 배우자의 이름을 친밀의 호위대에만 보고한 경우 배우자와 지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개인이 배우자의 이름을 친밀과 갈등의 호위대에 모두 보고한 경우 배우자와 양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성격특성(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IPIP]). 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신경증의 5요인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Goldberg(1999)가 개발하고 유태용과 이기범(2004)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IPIP는 각 성격에 해당하는 5요인 척도로 요인 당 10문항을 포함한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각 요인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우호성 .73, 성실성 .80, 외향성 .75, 개방성 .79, 신경증 .89로 나타났다.

결혼 적응도 (Revised Dyadic Marital Adjustment [DAS]). 결혼 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해 Spanier(1976)가 개발, Busby 등(1995)이 개정, 최성일(2004)이 번안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 일치도 6문항, 부부 응집도 4 문항, 결혼 만족도 4문항의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요인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일치도, 부부 응집도,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부부 일치도 .87, 부부 응집도 .89, 결혼 만족도 .90로 나타났다.

우울(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전겸구 등(2001)이 번안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다. 문항의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우

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불안(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GAD-7].)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Spitzer 등(2006)이 개발, Seo와 Park(2015)이 번안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불안 척도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다. 모든 문항의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성격(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신경증), 결혼 적응도(부부 일치도, 부부 응집도, 결혼 만족도), 우울 및 불안 간의 복잡한 상호 연결성을 살펴보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우선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변인들 간 상호 관련성을 반영하는 네트워크를 추정하고 강도 및 연계 중심성 지수를 확인하였다. 이후 양가적, 지지적 배우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각각 추정하고 네트워크 비교 분석 검증을 통해 네트워크 구조와 변인 간 관계의 강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 변인은 노드(node)로, 변인들 간 편상관은 노드 간 에지(edge)로 표현되었다. 에지는 정적 상관일 경우 파란색으로 부적 상관일 경우 빨간색으로 시각화하였으며, 변인 간 관련성의 강도가 높을수록 두꺼운 에지로 표현하였다. 네트워크 추정은 R4.4.1의 bootnet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Gaussian Graphical Model을 이용하여 노드 간

편상관을 산출하였다. 네트워크에서 유의미한 에지만을 시각화하기 위해 Extend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EBIC)을 기준으로 한 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LASSO)를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제시하였다.

네트워크의 핵심 및 연계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qgraph를 사용하여 강도 중심성(Strength)과 연계 강도 중심성 지수(Bridge Strength)를 산출하였다. 강도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특정 노드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노드들 간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을 합산한 지표로 강도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central node)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계 강도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특정 노드가 여러 군집을 연결하는 예지 가중치를 합산한 지표로 연계 강도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여러 군집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연계 변인(bridge node)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 이론과 연구에서 제언하는

바대로 중심성 지수의 값이 상위 25%에 해당되는 노드만을 핵심 및 연계 변인으로 해석하였다 (Jones et al., 2021).

양가적 배우자와 지지적 배우자 집단 간 네트워크 비교 분석 검증을 위해 Network ComparisonTest를 시행하였으며, 1000회의 반복 시행을 통해 신뢰구간을 산출하고 네트워크 간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네트워크 안정성(reliability)을 bootnet을 활용하여 검증하고 안정성 계수(correlation stability coefficient, CS)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선행 이론과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기준을 바탕으로 CS 계수가 .50 이상일 경우에만 안정적으로 네트워크가 추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추정된 네트워크와 중심성 지표를 해석하였다.

표 2 양가적, 지지적 배우자 집단 간 연구 변인의 그룹 차이 검증

	전체	양가적 배우자	지지적 배우자	<i>t</i> (483)
	<i>M</i> (<i>SD</i>)	<i>M</i> (<i>SD</i>)	<i>M</i> (<i>SD</i>)	
성격 특성				
우호성	3.23 (0.50)	3.18 (0.48)	3.28 (0.51)	-2.20*
성실성	3.55 (0.62)	3.50 (0.59)	3.59 (0.63)	-1.54
외향성	2.99 (0.66)	2.95 (0.63)	3.02 (0.69)	-1.06
개방성	3.11 (0.55)	3.08 (0.54)	3.13 (0.55)	-1.00
신경증	2.47 (0.76)	2.62 (0.76)	2.37 (0.74)	3.65***
결혼 적응도				
부부 일치도	3.19 (0.94)	2.74 (0.96)	3.52 (0.79)	-9.50***
부부 응집도	2.38 (1.13)	1.88 (1.06)	2.73 (1.04)	-8.89***
결혼 만족도	3.52 (0.97)	3.04 (0.96)	3.86 (0.83)	-9.85***
심리적 건강				
우울	15.14 (10.73)	17.73 (11.10)	13.29 (10.09)	4.59***
불안	3.77 (4.54)	4.63 (4.74)	3.16 (4.29)	3.57***

주: **p*<.05, ***p*<.001.

결과

양가적, 지지적 배우자 집단 차이 검증

양가적, 지지적 배우자 간 그룹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양가적 배우자 집단은 지지적 배우자 집단에 비해 높은 신경증, 우울, 불안을 보였다. 반면, 지지적 배우자 집단은 양가적 배우자 집단에 비해 높은 우호성, 부부 일치도, 부부 응집도, 부부 만족도를 보였다.

전체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추정 전 R의 networktools에 포함된 Goldbricker를 통해 5요인 성격, 결혼 적응도의 하위 차원, 우울 및 불안에 해당하는 변인들이 문항 간 중복을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 중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을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네트워크 추정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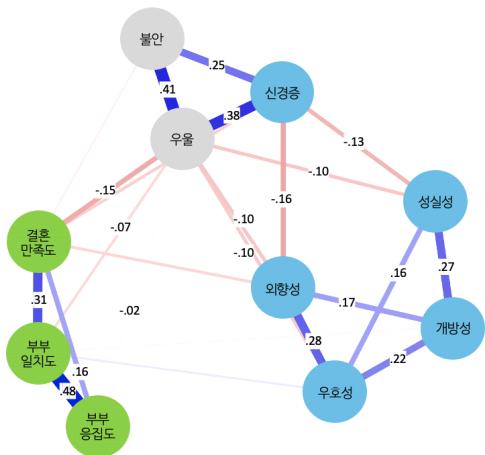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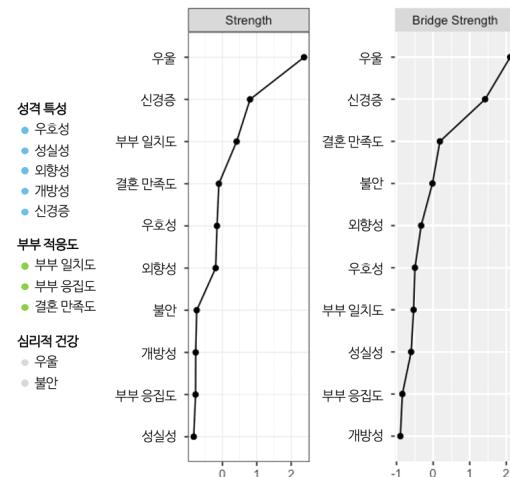


그림 1. 성격, 결혼 적응도, 우울 및 불안의 네트워크 및 중심성 지수

다. 연결될 수 있는 총 45개의 에지 중 28개의 에지(62.22%)가 유의하였으며, CS 계수는 .75로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본 결과, 우울, 불안, 신경증은 서로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보이며 조밀한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였고, 결혼 적응도의 하위 차원인 부부 일치도, 부부 응집도, 결혼 만족도와 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의 성격 특성이 높은 상호 관련성을 보이는 군집을 형성하였다.

변인들 간 상호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과 불안이 가장 높은 정적 연결성을 보였고 ($pr=.41$), 우울과 신경증($pr=.38$), 불안과 신경증 ($pr=.25$)이 정적 연결성을 보여 우울과 불안이 신경증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결혼 적응도의 하위 차원 또한 긴밀한 관련성을 보여, 부부 일치도와 부부 응집도의 정적 연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r=.48$), 부부 일치도와 결혼 만족도의 정적 연결성이 다음으로 높았다($pr=.31$). 결혼 적응도의 하위 차원 중 결혼 만족도($pr=-.15$)



와 부부 일치도($pr=-.07$)가 우울 수준과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

우울은 5요인 성격 중 성실성($pr=-.10$), 외향성($pr=-.10$), 우호성($pr=-.10$)과 부적 연결성을 보여 세 성격 특성이 우울의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냈으며, 성실성($pr=-.13$)과 외향성($pr=-.16$)은 신경증과 부적 연결성을 보여 성실성과 외향성이 신경증을 보완해줄 수 있음을 나타냈다.

평균적으로 노드 분산의 41.60%가 인접한 노드들에 의해 설명되었다. 네트워크의 강도 중심성은 우울, 신경증, 부부 일치도 순으로 나타나 이 변인들이 성격-결혼 적응도-심리적 건강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연계 강도 중심성은 우울과 신경증 순으로 나타나 우울과 신경증이 성격-결혼 적응도-심리적 건강 네트워크의 주요 군집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네트워크 비교 분석

양가적 배우자와 지지적 배우자 집단을 각각 추정한 네트워크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양가적 배우자와 지지적 배우자 집단의 네트워크 CS 계수는 각각 .75, .67로 나타나 네트워크는 안정적으로 추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 비교 분석 검증 결과,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maximum difference=.15, $p=.68$)와 강도(global strength difference=.28, $p=.31$)는 두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세부 변인 간 관계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실성과 부부 일치도의 정적 연결성($pr=.11$, $p<.001$), 신경증과 결혼 만족도의 부적 연결성($r=-.15$, $p<.05$)이 지지적 배우자 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호성과 우울의 부적 연결성이 양가적 배우자 집단보다 지지적 배우자 집단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pr_{양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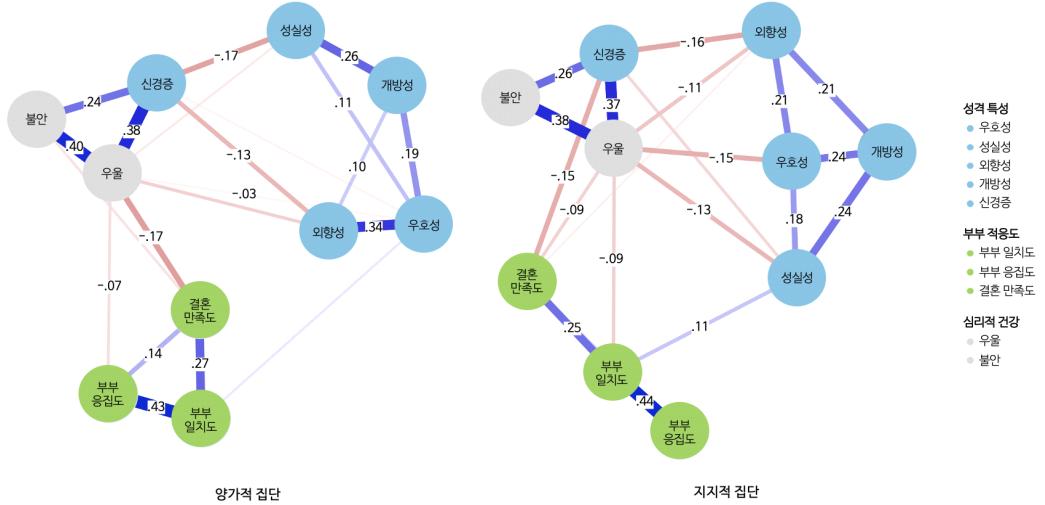


그림 2. 양가적, 지지적 배우자 집단의 네트워크

$=-.03$, $pr_{\text{지지적}}=-.15$, $p<.05$).

논 의

배우자는 개인에게 가장 가깝고 중요한 사회적 타자이나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인생의 많은 영역을 공유하기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기 쉽고,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정적 정서가 누적되어 양가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Surjadi et al., 2023). 본 연구는 이러한 배우자 관계를 대상으로 개인의 성격(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신경증), 결혼 적응도의 하위 차원(부부 일치도, 부부 응집도, 결혼 만족도), 우울 및 불안 간의 복잡한 상호 관계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네트워크 분석에 앞서 본 연구는 전체 표본을 양가적 배우자와 지지적 배우자 집단으로 구분하고 성격, 결혼 적응도의 하위 차원,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양가적 배우자 집단은 지지적 배우자 집단에 비해 신경증, 우울,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지적 배우자 집단은 양가적 배우자 집단보다 우호성, 부부 일치도, 부부 응집도,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경증 성향이 높을수록 타인과 양가적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 및 친구와 양가적 관계를 유지하는 개인이 높은 우울과 불안 수준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Fingerman et al., 2006; Holt-Lunstad & Clark, 2014; Lee et al., 2022). 기존 선행 연구들은 배우자와 양가 관계를 유지하는 개인이 결혼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는데(Faure et al., 2022;

Surjadi et al., 2023), 본 연구에서는 결혼 적응도의 하위 차원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양가적 배우자 집단이 지지적 배우자 집단에 비해 결혼 적응도의 모든 하위 차원에 있어 낮은 수준을 보고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양가적 배우자와 지지적 배우자 집단의 비율이 인구통계학 정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0세 이상의 노년에 해당하는 성인은 중년에 해당하는 성인에 비해 지지적 배우자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보고된 양가적 관계에 해당하는 비율이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비율보다 낮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선행 연구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40-69세의 성인보다 낮은 연령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관계의 유형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가적 관계의 비율이 높은 것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이 배우자와 공유하는 유사성이 높아지고 갈등과 충돌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배우게 되면서 결혼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한다(Connidis & Barnett, 2018). 남성에 비해 여성이 배우자를 양가적 관계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결혼을 통해 높은 지지를 경험하며, 남성보다 여성이 배우자의 지지와 갈등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Birmingham et al., 2024; Shin & Park, 2023).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양가적 배우자보다 지지적 배우자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부분도 흥미로운 결과이다. 보다 구체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지지적 관계와 양가적 관계를

비교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연구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변인 간 상호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우울과 불안은 특히 긴밀한 상호 연결성을 보이고, 각각 신경증과 높은 정적 연결성을 나타내 우울과 불안이 신경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경증 성향이 높은 개인이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을 보고하며(Nikčević et al., 2021), 우울과 불안은 동반이환 가능성이 높다는 (Wang et al., 2022)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신경증이 높은 개인은 정서적으로 불안정 하며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한 특성을 보여 불안을 자주 경험하고 이는 전반적인 일상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져 우울로 발달할 수 있다(Nikčević et al., 2021). 성급함과 과도한 걱정을 보이는 신경증 성향의 개인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쉽게 받으며 결과에 대한 부정적 해석으로 적절한 정서조절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높은 불안과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Wang et al., 2022).

개인의 성격 특성 중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은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보이며 조밀한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였고, 우울은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과 부적 연결성을 보여 이러한 성격 특성이 우울의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실성과 외향성은 신경증과 부적 연결성을 보여 이러한 성격 특성이 우울 및 불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신경증 성향을 보완해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이 서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도 보고되었으나(Morstead et al., 2024),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성격 특성들이 긴밀한 상호관련성을 보이는 군집을 형성하여 특정 성격이 다

른 성격 특성을 활성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성실하고 우호적인 개인은 타인에게 협력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일 것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누적됨에 따라 사회적 교류가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성격으로 변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Kang, 2023).

이처럼 성실성과 우호성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신경증 성향을 보완하여 우울과 불안의 보호 요인이 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성실성이 높은 개인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 활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이는 심리적 건강으로도 이어지게 된다 (Kummer et al., 2021). 또한, 외향성과 우호성이 높은 개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타인과의 유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보다 적응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며(Delatorre et al., 2022) 이는 우울과 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Nikčević et al., 2021).

결혼 적응도의 하위 차원인 부부 일치도, 부부 응집도, 결혼 만족도 또한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보이며 조밀한 군집을 형성하였으나, 부부 일치도와 부부 응집도의 정적 연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 일치도와 결혼 만족도의 정적 연결성이 다음으로 높았다. 일치도가 높은 부부는 자녀 양육, 경제적 투자, 종교 활동, 사회적 관습에 대해 유사한 기준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때문에(Spanier, 1976),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에 있어 갈등을 적게 경험한다. 또한, 일치도가 높은 부부는 여가를 보내는 방식과 선호도가 유사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이는 부부 간의 높은 응집도로 이어질 수 있다(Wijaya & Widyaningsih, 2020). 유사한 가치관과 삶의 태

도를 가진 부부는 갈등이 적을 뿐 아니라 갈등의 해결도 상대적으로 쉬워 높은 결혼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다(Ünal & Akgün, 2022). 본 연구 결과는 결혼 적응도의 하위 차원 중 부부 일치도가 부부 응집도와 결혼 만족도와 긴밀한 관련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두 차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혼 적응도의 하위 차원은 결혼 만족도, 부부 일치도, 부부 응집도 순으로 우울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만족도가 우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 꾸준히 보고되어 왔으나(Bulanda et al., 2021), 부부 일치도와 부부 응집도가 우울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부부 인지행동치료(CBCT)에 대한 연구는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서로의 태도에 대해 관용적인 모습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상호작용이 우울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다(Durães et al., 2020). 이러한 치료가 부부 간의 일치도를 높이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고려할 때, 배우자 관계와 우울 간 관련성을 살펴봄에 있어 결혼 만족도 뿐 아니라 부부 일치도와 부부 응집도를 포함한 모든 차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변인과 군집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연계 변인을 확인한 결과, 우울, 신경증, 부부 일치도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우울과 신경증이 연계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우울과 신경증이 성격, 결혼 적응도, 심리적 건강의 관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울과 신경증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유전적 기반을 공유하며(Meng et al.,

2020), 신경증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평가와 반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부정적 정서와 행동을 유발하여 우울과 결혼 적응도에 악영향을 미친다(Vater & Schröder-Abé, 2015; Yang et al., 2023). 이는 개인의 결혼 적응도와 심리적 건강을 위해 신경증을 보완할 수 있는 성격과 관련 요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 우울과 신경증 다음으로 부부 일치도가 네트워크의 핵심 요인으로 나타난 본 결과는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결혼 적응도에 배우자와의 의견 일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부부 일치도를 높이기 위한 개입 및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Ünal & Akgün, 2022).

양가적 배우자와 지지적 배우자 집단을 구분하여 네트워크를 각각 추정하고 비교 검증한 결과,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와 강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 결혼 적응도, 우울 및 불안의 상호 관계 패턴이 두 집단 간에 전반적으로 유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부 변인 간 관계의 강도에 있어 몇 가지 차이를 보였다. 첫째, 성실성과 부부 일치도의 정적 연결성과 신경증과 결혼 만족도의 부적 연결성이 지지적 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성과 신경증이 결혼 만족도에 각각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O'Meara & South, 2019). 성실성이 높은 개인은 갈등 상황에서 정서를 적응적으로 조절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배우자와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를 원활히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Vater & Schröder-Abé, 2015). 반면, 신경증이 높은 개인은 갈등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반응과 적대적인 태도를 보

여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다(Vater & Schröder-Abé, 2015). 이러한 관련성이 지지적 배우자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지지적 배우자 집단이 양가적 배우자 집단에 비해 높은 부부 일치도, 부부 응집도, 결혼 만족도를 보이는 것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즉, 지지적 배우자 집단에 속하는 개인은 양가적 배우자 집단에 속한 개인에 비해 전반적인 결혼 적응도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성실성과 신경증이 부부 일치도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더욱 클 수 있다. 둘째, 우호성과 우울의 부적 연결성이 양가적 배우자 집단보다 지지적 배우자 집단에서 더 긴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호성이 높은 개인은 배우자의 지지를 더 자주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울을 낮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Nikčević et al., 2021). 이러한 관련성이 지지적 배우자 집단에서 더 긴밀하게 나타난 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전반적인 결혼 적응도의 수준이 높은 지지적 배우자 집단에서는 우호성이 우울에 미치는 완충 효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을 것이다(Shin & Gyeong, 2023).

본 연구는 5요인 성격 특성, 결혼 적응도의 하위 차원, 우울 및 불안 간의 복잡한 상호 관계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변인 간 단편적인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배우자 관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결혼 적응도의 하위 차원을 연구 모형에 모두 함께 포함하여 성격,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었다. 특히, 본 논문은

네트워크 접근을 사용하여 개인 특성에 해당하는 성격과 관계 특성에 해당하는 결혼 적응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울 및 불안을 살펴본 많은 선행 연구들은 주로 신경증 성향에 초점을 맞추어왔으나 본 연구 결과는 신경증 외 다양한 성격 특성들이 밀접한 연결성을 가지며 우울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신경증을 보완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기존 인지 행동 치료와 마음 챙김을 통한 개입이 정서 안정성 증진을 통해 신경증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Almenräder et al., 2024), 본 연구는 다른 성격 특성을 보완적으로 강화하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겸증한 핵심 변인과 연계 변인은 연결된 다른 관련 변인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제한점이 있어 후속 연구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양가적 배우자와 지지적 배우자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나, 개인이 배우자에게 지각하는 긍정성과 부정성의 정도를 연구 모형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도를 반영하여 양가적 관계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획단 자료를 사용하여 변인 간 상호 관련성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변인 간의 인과 관계를 해석하기에 제한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를 기반으로 종단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여 성격, 결혼 적응도, 심리적 건강 간의 인과 관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임상 집

단을 대상으로 우울과 불안을 측정하고 관련성이 높은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분석은 중심성 지수를 통해 여러 변인들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변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우울 장애 또는 범불안 장애 등 특정 임상군을 대상으로 우울 및 불안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요인을 판별함으로써 우울과 불안의 유지와 진행 양상에 기여하는 요인을 확인한다면 실질적인 개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유태용, 이기범. (2004).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구성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61-75.
-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최성일. (2004). 개정판 부부적응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고황논집*, 35, 97-114.
- Asselmann, E., & Specht, J. (2020). Taking the ups and downs at the rollercoaster of love: Associations between major life events in the domain of romantic relationship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Developmental Psychology*, 56(9), 1803-1816. <https://doi.org/10.1037/dev0001047>
- Almenräder, F., Heßmann, G. S., Voracek, M., & Tran, U. S. (2024). Personality change through mindfulness-based interventions: A preregistered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0(0). <https://doi.org/10.1177/08902070241289160>
- Birmingham, W. C., Herr, R. M., Cressman, M., Patel, N., & Hung, M. (2024). While You Are Sleeping: Marital Ambivalence and Blunted Nocturnal Blood Press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1(6), 723. <https://doi.org/10.3390/ijerph21060723>
- Birmingham, W. C., Uchino, B. N., Smith, T. W., Light, K. C., & Butner, J. (2015). It's complicated: Marital ambivalence on ambulatory blood pressure and daily interpersonal functioning.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49(5), 743-753. <https://doi.org/10.1007/s12160-015-9709-0>
- Birmingham, W. C., Wadsworth, L. L., Hung, M., Li, W., & Herr, R. M. (2019). Ambivalence in the early years of marriage: Impact on ambulatory blood pressure and relationship processes.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53(12), 1069-1080. <https://doi.org/10.1093/abm/kaz017>
- Bulanda, J. R., Yamashita, T., & Brown, J. S. (2021). Marital quality, gender, and later-life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Journal of Women & Aging*, 33(2), 122-136. <https://doi.org/10.1080/08952841.2020.1818538>
- Busby, D. M., Christensen, C., Crane, D. R., & Larson, J. H. (1995). A revision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for use with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Construct hierarchy and multidimensional sca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1(3), 289-308. <https://doi.org/10.1111/j.1752-0606.1995.tb00163.x>
- Connidis, I. A., & Barnett, A. E. (2018). *Family ties and aging*. Sage publications.
- Delatorre, M. Z., Wagner, A., & Bedin, L. M. (2022). Dyadic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social support, conflict resolution, and marital quality. *Personal Relationships*, 29(1), 199-216. <https://doi.org/10.1111/pere.12410>
- Durães, R. S. S., Khafif, T. C., Lotufo-Neto, F., &

- Serafim, A. D. P. (2020). Effectiveness of cogni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on reducing depression and anxiety symptoms and increasing dyadic adjustment and marital social skills: An exploratory study. *The Family Journal, 28*(4), 344–355. <https://doi.org/10.1177/1066480720902410>
- Faure, R., McNulty, J. K., Hicks, L. L., & Righetti, F. (2020). The case for studying implicit social cognition in close relationships. *Social Cognition, 38*(Supplement), s98–s114. <https://doi.org/10.1521/soco.2020.38.supps98>
- Faure, R., McNulty, J. K., Meltzer, A. L., & Righetti, F. (2022). Implicit ambivalence: A driving force to improve relationship problem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3*(2), 500–511. <https://doi.org/10.1177/19485506211034277>
- Fingerman, K. L., Hay, E. L., & Birditt, K. S. (2004). The best of ties, the worst of ties: Close, problematic, and ambivalent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3), 792–808. <https://doi.org/10.1111/j.0022-2445.2004.00053.x>
- Fingerman, K. L., Chen, P. C., Hay, E., Cichy, K. E., & Lefkowitz, E. S. (2006). Ambivalent reactions in the parent and offspring relationship.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1*(3), 152–160. <https://doi.org/10.1093/geronb/61.3.P152>
- Goldberg, L. R. (1999). A broad-bandwidth, public 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ets of several five-factor model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7*(1), 7–28.
- Holt-Lunstad, J., & Clark, B. D. (2014). Social stressors and cardiovascular response: Influence of ambivalent relationships and behavioral ambival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93*(3), 381–389. <https://doi.org/10.1016/j.jad.2014.05.014>
- Holt-Lunstad, J., & Uchino, B. N. (2019). Social ambivalence and disease (SAD): A theoretical model aimed at understanding the health implications of ambivalent relationship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4*(6), 941–966. <https://doi.org/10.1177/1745691619861392>
- Jones, P. J., Ma, R., & McNally, R. J. (2021). Bridge centrality: a network approach to understanding comorbidity.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56*(2), 353–367. <https://doi.org/10.1080/00273171.2019.1614898>
- Kahn, R. L., & Antonucci, T. C. (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In P. B. Baltes & O. C. Brim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pp. 254–283). Academic Press.
- Kang, W. (2023). Establishing the associations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self-reported number of close friends: A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study. *Acta Psychologica, 239*, 104010. <https://doi.org/10.1016/j.actpsy.2023.104010>
- Kendrick, H. M., & Drentea, P. (2016). Marital adjustment. *Encyclopedia of Family Studies, 1*-2. <https://doi.org/10.1002/9781119085621.wbefs071>
- Kahn, R.L. & Antonucci, T.C. (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In: Baltes, P.B. and Grim, O.G., Eds.,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3, Academic Press, New York, 253–286.
- Kummer, S., Dalkner, N., Schwerdtfeger, A., Hamm, C., Schwalsberger, K., Reininghaus, B., Krammer, G., & Reininghaus, E. (2021). The conscientiousness-health link in depression: Results from a path 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95*, 1220–1228. <https://doi.org/10.1016/j.jad.2021.09.017>
- Lee, H. J., Han, S. H., & Boerner, K. (2022).

- Psychological and physical health in widowhood: does marital quality make a difference?. *Research on Aging, 44*(1), 54–64. <https://doi.org/10.1177/0164027521989083>
- Lee, H. J., & Szinovacz, M. E. (2016). Positive, negative, and ambivalent interactions with family and friends: Associations with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8*(3), 660–679. <https://doi.org/10.1111/jomf.12302>
- Levy, N., Harmon-Jones, C., & Harmon-Jones, E. (2018). Dissonance and discomfort: Does a cognitive inconsistency evoke a negative affective state? *Motivation Science, 4*, 95–108. <https://doi.org/10.1037/mot0000079>
- McCrae, R. R., & Costa, P. T. (2008). Empirical and theoretical status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traits. *The SAGE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assessment, 1*, 273–294.
- Meng, W., Adams, M. J., Reel, P., Rajendrakumar, A., Huang, Y., Deary, I. J., ... & Smith, B. H. (2020). Genetic correlations between pain phenotypes and depression and neuroticism. *European Journal of Human Genetics, 28*(3), 358–366. <https://doi.org/10.1038/s41431-019-0530-2>
- Morstead, T., Rashidi, R., Zheng, J., Sin, N. L., & DeLongis, A. (2024). Personality as a predictor of changes in perceived availability of social suppor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6*, 112708. <https://doi.org/10.1016/j.paid.2024.112708>
- Nikčević, A. V., Marino, C., Kolubinski, D. C., Leach, D., & Spada, M. M. (2021). Modelling the contribution of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health anxiety, and COVID-19 psychological distress to generalised anxiety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79*, 578–584. <https://doi.org/10.1016/j.jad.2020.10.053>
- Offer, S. (2020). They drive me crazy: difficult social ties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61*(4), 418–436. <https://doi.org/10.1177/0022146520952767>
- O'Meara, M. S., & South, S. C. (2019). Big Five personality domain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Direct effects and correlated change over time. *Journal of Personality, 87*(6), 1206–1220. <https://doi.org/10.1111/jopy.12468>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https://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 Sayehmiri, K., Kareem, K. I., Abdi, K., Dalvand, S., & Gheshlagh, R. G.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marital satisfac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MC Psychology, 8*, 1–8. <https://doi.org/10.1186/s40359-020-0383-z>
- Seo, J. G., & Park, S. P. (2015). Validation of the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GAD-7) and GAD-2 in patients with migraine. *The Journal of Headache and Pain, 16*(1), 1–7. <https://doi.org/10.1186/s10194-015-0583-8>
- Shin, H., & Park, C. (2023).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networks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are social relationships more health protective in women than in men? *Frontiers in Psychology, 14*, 1216032. <https://doi.org/10.3389/fpsyg.2023.1216032>
- Shin, H., & Gyeong, S. (2023). Social support and strain from different relationship sources: Their additive and buffering effects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hood.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40*(8), 2538–2567. <https://doi.org/10.1177/02654075231153350>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5–28. <https://doi.org/10.2307/350547>
- Spitzer, R. L., Kroenke, K., Williams, J. B., & L we, B. (2006). A brief measure for assessing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the GAD-7.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6(10), 1092–1097. <https://doi.org/10.1001/archinte.166.10.1092>
- Surjadi, F. F., Wickrama, K. A., & Lorenz, F. O. (2023). Do couple-and individual-level ambivalence predict later marital outcomes? The mediating role of marital conflic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40(2), 693–713. <https://doi.org/10.1177/02654075221122852>
- Tighe, L. A., Birditt, K. S., & Antonucci, T. C. (2016).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mplications for depressive symptoms over time. *Developmental Psychology*, 52(5), 824–834. <https://doi.org/10.1037/a0040146>
- Uchino, B. N., Kent de Grey, R. G., & Cronan, S. (2016). The quality of social networks predicts age-related changes in cardiovascular reactivity to stress. *Psychology and Aging*, 31(4), 321–326. <https://doi.org/10.1037/pag0000092>
- Uchino, B. N., Smith, T. W., & Berg, C. A. (2014). Spousal relationship quality and cardiovascular risk: Dyadic perceptions of relationship ambivalence are associated with coronary-artery calcification. *Psychological Science*, 25(4), 1037–1042. <https://doi.org/10.1177/0956797613520015>
- Ünal, Ö., & Akgün, S. (2022). Conflict resolution styles as predictors of marital adjust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Journal of Family Studies*, 28(3), 898–913. <https://doi.org/10.1080/13229400.2020.1766542>
- Vater, A., & Schröder-Abé, M. (2015). Explaining the link between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Emotion regulation and interpersonal behaviour in conflict discussion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9(2), 201–215. <https://doi.org/10.1002/per.1993>
- Van Harrevelt, F., Nohlen, H. U., & Schneider, I. K. (2015). The ABC of ambivalence: Affective, behavioral,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itudinal conflict.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52, pp. 285–324). Academic Press.
- Wang, X., Lin, J., Liu, Q., Lv, X., Wang, G., Wei, J., ... & Si, T. (2022). Major depressive disorder comorbid with general anxiety disorder: Associations among neuroticism, adult stress, and the inflammatory index.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48, 307–314. <https://doi.org/10.1016/j.jpsychires.2022.02.013>
- Wijaya, A. P., & Widyaningsih, Y. A. (2021). The role of dyadic cohesion on secure attachment style toward marital satisfaction: a dyadic analysis on couple vacation decision. *Journal of Quality Assurance in Hospitality & Tourism*, 22(1), 119–142. <https://doi.org/10.1080/1528008X.2020.1756022>
- Yang, Y., Luo, B., Ren, J., Deng, X., & Guo, X. (2023). Marital adjustment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hinese perinatal women: a prospective, longitudinal cross-lagged study. *BMJ open*, 13(10), e070234. <https://doi.org/10.1136/bmjopen-2022-070234>

원고접수일: 2024년 8월 16일

논문심사일: 2024년 10월 23일

게재결정일: 2024년 10월 23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5. Vol. 30, No. 1, 25 - 42

Network Analyses of Ambivalent and Supportive Social Ties: Inter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Marital Adjustment, Depression and Anxiety

Sunjeong Gyeong

Chaerim Park

Huiyoung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Personality traits, marital adjustment, depression and anxiety are closely interrelated, and their complex interrelationships can differ between ambivalent and supportive social t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tricate pattern of these interrelationships among personality traits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extroversion, openness to experience, neuroticism), three dimensions of marital adjustment (spousal consensus, spousal cohesion, marital satisfaction), depression, and anxiety using network analyses. The network structure was characterized, and centrality indices of strength and bridge strength were examined. Group differences between ambivalent and supportive social ties were also assessed using the Network Comparison Test. Results based on a sample of 485 married adults ($M_{age}=54.38$) revealed that depression, anxiety, and neuroticism were densely interrelated and negatively connected to marital satisfaction. Depression, neuroticism, and spousal consensus were identified as central nodes, and depression and neuroticism were central bridge nodes in the network. The connections of conscientiousness and spousal consensus, and neuroticism and marital satisfaction were found only in the supportive ties, whereas the connection of agreeableness and depression was stronger in supportive ties than in ambivalent ties. The findings underscore that focusing on strength-based personality traits and spousal consensus could be beneficial for effective intervention efforts.

Keywords: ambivalent relationship, supportive relationship, personality traits, marital adjustment, depression, anxiety